

설교자회의 (20241025 이기영 목사)

1. 본문: 사사기 7:1~8절
제목: 적게 남기신 이유
대지 1. 부족한 삼만 이천 명
2. 충분한 삼백 명

한줄 요약 “인간은 삼만 이천 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삼백 명도 충분하심을 보여주시려 적게 남기셨다.”

미디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적군과 기드온의 군대가 한판 승부를 겨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군은 네 지파에서 징병된 삼만 이천 명의 보병이 전부였고, 적군은 십삼만 오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5배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낙타가 있었습니다. 사막 기후에 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낙타를 타고 전투를 벌였고, 기병만큼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배의 병력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삼만 이천 명이 많으니 돌려 보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전하게 되고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만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자는 ‘삼백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삼백 명만 남기셨을까요?

기드온은 사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안 끊임없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정체성을 끊임없이 질문하셨지만 기드온은 계속 다른 대답을 합니다.

삼백 명만 남겨 십삼만 오천 명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의미는 이방나라의 공격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의 산에 거주하는 히위족속이라 남겨 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은 유혹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의미입니다.

오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민족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자회의 (20241025 이기영 목사)

오늘 하나님은 삼백 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며,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이며, 이스라엘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기르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수심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시는 찬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미디안과 같은 내가 가진 능력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일이 몰려와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2. 본문: 사사기 16:23~31절

제목: 삼손의 최후

대지 1. 블레셋의 착각

2. 죽음이 남긴 의미

한줄 요약 **“블레셋은 다곤 신의 도움 때문에 삼손을 잡았다 착각했지만,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여 종교적인 축제를 열기 위해 그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공공의 적 1순위였던, 삼손 때문에 열린 축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손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괴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능력이지 머리가 길어서 생긴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 신분을 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삼손을 생포한 일이 자신들의 신 다곤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잡힌 것은 삼손의 머리가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셔서 그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에 다시 힘이 회복되어,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증언하며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손의 최후를 보면, 어떤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판에 속이 다 후련하게 원한을 갚고, 장렬하게 삶을 마친 삼손의 모습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최후는 통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통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느껴지는 비통함일까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척 강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단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모자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곧 소명의식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허비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으며,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사사기는 아무런 변명이나 교훈도 곁들이지

설교자회의 (20241025 이기영 목사)

많은 채 사실을 담담히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죽음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사는 내내 그 누구에게도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로 살았고, 자기하나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드러나는 가장 허망한 내용'입니다. 자기하나 죽으면 그만인 인생은 자기 하나 죽으면 그동안 누렸던 복도, 지고 있던 짐도 끝나버리는 인생을 삼손의 생을 통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결국 보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사였던 삼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누구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죽음은 허망하고 비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시는 의미임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3. 본문: 사사기 21:15~25절

제목: 사사기의 가치

대지 1. 진심과 열심

2.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한줄 요약 “사사기는 인간의 진심과 열심, 각자의 소견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고, 하나님부터로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 의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격분한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으로 잘라 각 지파에게 보냈고, 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분개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있기에,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인의 첩을 죽인 범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나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 일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대패하여, 광야로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 20: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것은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족한 여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 궁리 끝에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축제가 열릴 때, 베냐민 지파에게 숨어 있다가 처녀들을 하나씩 납치하여,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종족의 명맥을 유지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21장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을 기

설교자회의 (20241025 이기영 목사)

록해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박영선 목사님은 “죄악에 대한 인간의 진심과 열심이 있다 한 들 폭력을 휘두르고 분노를 폭발하여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고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사사기를 다 읽어도 ‘아멘’을 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너희가 내세우는 명분과 너희의 깊은 진심이 만들어내는 모순과 비극을 보라고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구절이 의미는 왕이 있었으면 좀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있어도 없었던 시대와 비교해 그리 나아보이지 않습니다. 왕정시대로 가도 역사나 실패한 역사의 반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사실 ‘핑계’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이스라엘의 핑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주셨음에도 그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한들 인간에게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복이 풍성함과 부요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자가 원하는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만 댈뿐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과 열심이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4. 본문: 에스더 4:13~17절

제목: 이런 일을 계획한 분

대지 1. 결단과 순종

2. 책임과 목적

한줄 요약 “이런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나 에스더의 결심과 모르드개와 백성들의 순종을 .”

문제의 발단은 3:2절에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모르드개는 꿇어 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3:4절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

설교자회의 (20241025 이기영 목사)

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라는 양속 관계가 하만과 모르드개의 대결구도의 근본적 이유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7:16절, 신명기25:17절, 사무엘상 15:8절을 보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사울 왕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자신들을 공격한 아말렉을 평생의 원수로 여겼으며, 그 원수 된 관계 속에서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는 상황까지 갔었기에 두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에게 하만의 계획은 오히려 사방의 옥여쌘을 당한 형국입니다, 모르드개는 이 어려움들을 에스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마음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 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 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도 이런 왕궁의 법도를 가르친 것이 자신이기에 당연히 에스더가 머뭇거릴 거며, 주저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말을 통해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사의 왕후가 된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지금이 목적과 뜻을 이룰 때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지금이 그때를 위함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에 대한 책임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녀가 살길은 오직, 그녀가 왕후로 세워진 목적을 이뤄 민족을 살리는 길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격퇴했을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절체절명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에서 하만의 계략에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흩어진 곳에서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밖에는 이스라엘에게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설교자회의 (20241025 이기영 목사)

에서는 에스더의 결단과 순종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과 결단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것 특별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책임과 목적을 알게 하고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